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 : 江原大學 統一問題硏究所

研究責任者 : 金 井 厚

目　　次

Ⅰ. 序　論 ………… 6

Ⅱ. 6.23宣言과 国内安保態勢 ………… 9

Ⅲ. 6.23宣言이 接敵地住民에게 미칠 影響 ………… 22

1. 接敵地住民의 社会的 背景과 意識構造 ………… 22

2. 統一問題에 대한 伝達弘報의 効果와 輿論 ………… 32

3. 6.23宣言이 미칠 影響 ………… 40

Ⅳ. 6.23宣言에 대한 住民의 理解程度와 統一問題에 대한 現地教師들의 意見 ………… 47

1. 6.23宣言에 대한 住民의 理解程度 ………… 47

2. 統一課題에 대한 現地教師들의 意見 ………… 49

3. 부각된 問題点과 改善方向 ………… 56

Ⅴ. 6.23宣言의 伝達弘報上의 考慮事項 ………… 61

1. 伝達弘報方法上의 考慮事項 ………… 61

2. 伝達弘報 内容上의 考慮事項 ………… 65

Ⅵ. 結　論 ………… 69

要 約

6.23宣言의 接敵地住民에 대한 伝達弘報方案을 模索함에 있어서는 단지 6.23宣言에 대한 住民의 理解度와 支持度를 增進시킬 뿐 아니라 現在 地域住民들이 가지고 있는 根本的인 思考方式과 統一問題에 対한 輿論上에 나타난 우려되는 問題点을 解消하는데 그 目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서 国内外 与件에 따라서 신축 자재하여야 할 統一政策의 展開에 대한 住民의 受容態勢를 確立하고 自発的 参与를 통한 国民의 団合과 力量의 增大에 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6.23宣言의 弘報에 있어서는 第1次的 目標는 国内安保態勢의 維持強化로 보았고 먼저 6.23宣言의 内容中에서 国民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나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問題들을 発見하여 이것이 接敵地住民들에게 어떻게 作用할 것인가를 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接敵地住民의 社会的 背景과 意識構造, 統一問題에 대한 輿論과 지금까지의 伝達弘報状況을 分析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6.23宣言이 住民들에게 미칠 影響을 大略 다음과 같이 予見하였다.

즉, 우려되는 影響으로는 反共, 安保態勢가 자칫하면 해이해질 可能性이 있고 급상승했던 統一에의 期待가 좌절되어 실망과 統一意欲의 상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住民의 不安感과 体制나 思想에 대한 機会主義的 불투명성을 增大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影響으로 생각되는 것은 성급한 統一論議를 불식하

고 現実的이고 段階的인 統一努力에 대한 国民의 理解와 姿勢를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形式的 要素가 많고 無条件的이던 反共態勢를 보다 内容있고 信念에 바탕을 둔 統一姿勢로 승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으며 6.23宣言의 당면목표인 緊張緩和에 따라서 武力対峙地域이라는 데서 오는 不安感이 減少되고 交流, 競争, 協力 地域으로서 予見되는 開発投資에 따라서 소외감도 제거되어 귀속감과 정착의사 및 発展意慾이 増大될 可能性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6.23宣言에 대한 住民들의 理解程度와 反応을 調査하고 現地中高等学校 教師들의 統一課業 및 教育弘報에 관한 意見을 分析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6.23宣言의 住民에 대한 影響이 어느정도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는 한편 가장 큰 問題가 무엇이며 어떤것이 시급한 과제인가를 発見하기 위해서 였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統一問題에 대한 住民의 관심이 크게 저하되고 6.23선언에 대한 이해정도가 퍽 낮으며 統一論議가 너무 閉鎖되어온데서 부작용이 発生되고 있고 体系있는 教育弘報와 弘報方法上의 다양성이 不足하며 反共教育과 統一弘報間에 상당한 混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이러한 問題点을 解決하고 組織的인 弘報活動을 전개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考慮事項을 伝達弘報 方法上의 것과 内容上의 것으로 나누어 열거하였다.

특히 住民들에 대한 事前調査를 徹底히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 계층별로 或은 地域別로나 職場別로 다양성 있는 弘報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細密한 計劃에 따라서 먼저 6.23 宣言이 目的하는 來日의 「비죤」을 明確히 提示하고 「퍼스널 콤뮤니케이숀」과 「하우스 메디아」를 보다 強化하고 活用하여야 하며 住民의 意思가 健全한 輿論을 形成하여 政策에 反映될 수 있는 「채널」을 設定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려하여야 할 伝達弘報의 內容도 住民의 不信風潮를 감안하여 諸般 事態에 대한 正確한 報道를 하여야 하고 소외감을 감안하여 輿論을 尊重하여야 할 뿐 아니라 6.23宣言이 이 地域住民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否定的 側面과 肯定的 側面을 各各 고려하여 事項別로 対策을 樹立하고 이를 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政策的 뒷받침이 現實的으로 併行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I. 序 論

接敵地域은 그 地政学的 特殊性 때문에 南北関係와 統一政策의 変遷에 따라 가장 민감한 反応을 나타내는 地域이다.

과거 南北間의 緊張状態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60年代末의 地域住民들의 思考 및 生活状態와 南北対話 이후의 그것은 너무도 큰 충격과 変化의 결과로 불과 2, 3年間의 変化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의 調査研究가 행하여졌기 때문에 길게 分析하는 것은 피하였다.

다만 同地域이 反共武力対決地域에서 南北間의 比較競争地域 내지 交流 協力地域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地域社会와 住民의 意識構造속에 존재하는 問題点이 크고 이에 反하여 同地域이 担当하여야 할 統一의 前進基地로서의 役割은 무겁기 때문에 統一政策의 推進에 있어서는 이 地域에 대한 배려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本 研究에서는 7.4 南北共同声明 이후의 統一政策의 展開過程에서 重大한 계기를 이루는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이 이 地域住民들에게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6.23 宣言의 住民들에 대한 伝達弘報에 있어서는 어떠한 事項이 특히 考慮되어야 할 것인가를 中心課題로 삼았다.

이를 究明하라면 먼저 6.23 宣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

나 제기할 可能性이 있는 問題로서 그것이 国家安報態勢에 惡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는 問題를 추출해 보고 이러한 問題에 대한 接敵地住民의 反応은 무엇이겠는가를 알기 위하여 住民들의 社会的 背景과 意識構造 그리고 統一問題에 대한 輿論上에 存在하는 特殊性을 이에 代入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6.23宣言에 대하여 現在 이 地域住民들이 理解하고 있는 정도와 反応 그리고 輿論形成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担当할 수 있는 地域 意見指導者(Opinion Leader)들의 統一問題에 대한 意見을 調査, 分析하는 것은 상기한 6.23宣言이 住民에게 미칠 影響을 檢討하고 앞으로 어떻게 伝達弘報하여야 겠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할 것이다.

따라서 本 調査研究에서는 6.23宣言의 具体的인 弘報計劃을 직접 樹立하자기 보다는 接敵地住民들에게 伝達弘報活動을 実施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基本方向과 計劃의 必須要件을 추출함으로써 政策資料를 제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물론 6.23宣言의 伝達弘報에 있어서 直接目的은 住民의 理解와 支持의 增大이지만 그것은 또한 短期的으로는 国内安保態勢가 6.23宣言에 의하여 해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長期的으로는 이 地域住民으로 하여금 名実 共히 統一에의 선봉적 役割을 할 수 있는 姿勢를 確立하도록 하는데 보다 큰 目的이 있다는 것을 理論展開의 前提로 삼았다.

本 研究에서 引用한 資料 江原大学統一問題研究所가 6.23宣言을

前後하여 実施한 住民들의 輿論調査結果인데 前後의 것이 同一対象에 대해서가 아니고 특히 6.23宣言 이후의 자료는 正確한 量的 測定보다는 問題点의 発見과 住民들의 自発的인 意見을 알자는데 注目하여 主觀式 答弁書의 形式과 口頭 面談応答의 形式을 취하였기 때문에 6.23이전과 이후의 変化에 대한 比較測定은 어려운 것이 事実이다.

問題点의 도출과 方向의 제시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論理의 展開도 裂拠式説明에 그쳤다.

Ⅱ. 6.23宣言과 国内安保態勢

1973年 6月 23日의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 特別声明은 그 声明中에서와 国務總理의 背景說明에서 分明히 하였듯시 国際情勢의 発展에 対処한 外交政策의 一大転換으로서 平和統一의 対外的 与件造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評価되어 国內外的으로 큰 支持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事実이다.

特히 7個項目中 새로운 政策宣言인 北韓의 国際機構 参与黙認과 유엔 同時加入 不反対 그리고 모든 国家와의 門戸開放은 建国이래의 不変한 外交原則이던 北韓에 대한 国際的 封鎖 내지 存在自体의 묵살 政策을 철회함을 의미하고 中立国家와 共産国家에 대하여는 할슈타인系則을 버리고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転換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6.23宣言을 계기로 韓国外交는 한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다.

6.23宣言이 外交政策宣言이지만 그것이 韓国의 統一原則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性質上 国內의 安保 및 反共体制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事実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물론 6.23宣言으로 北韓과 対共産圏에 대한 韓国의 外交政策을 転換시킨다고 해서 당장 安保体制 自体를 変化시켜야만 한다거나 反共態勢를 変更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게 되고 또는 共産国家와 外交関係를 樹立하게 된다 하더라도 韓美 相互防衛条約과 같은 安保体制

는 모순되는 것도 不必要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共産国家와의 修交가 反共의 포기를 条件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外交政策의 수행과정에는 国際的 安保体制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의 事態変化에 따라야겠지만 당장에 問題되는 것은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으로 지금까지의 国内의 安保態勢 특히 国民의 統一観과 反共姿勢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에 대한 対策이 무엇이겠느냐이다.

6.23宣言의 国内安保態勢에 대한 問題点을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겠다.

가.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이 두개의 韓国을 인정하고 北韓을 承認하는 것으로 誤解시킬 염려가 있다.

유엔憲章이 加盟国의 자격을 主権国家로 하고 있고 加盟国間의 主権平等을 原則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의 同時UN加入은 国際的으로는 두개의 韓国으로 인식시키게 될것이 아니냐는 것과 韓国이 北韓을 国家로 承認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자아낼 것은 자명하다.

첫째, 의문인 国際社会에서 두개의 韓国으로 인식되는 問題는 우리로서 막을 도리도 없고 또 구태어 그것을 막지 않겠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할슈타인 原則의 고집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타국이 우리를 두개의 韓国으로 取扱한다는 것과 우리 스스로 北韓을 国家로 承認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라는

것을 明確하게 国民에게 납득시키는 問題와 이것이 모든 対北韓関係의 論理와 行動에 一関될 수 있는 基準을 어느 선에서 確定할 것이냐가 問題다.

여기에는 国務総理의 背景説明에서 言及한 北韓을 事実上의 政権으로 認定하는 線이 그어지기는 했다.

그리고 이에 南北対話에서 休戦会談時의 交戦団体로서의 承認보다는 한단계 나아간 対話의 相対로서의 事実上의 黙示的 認定은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事態進前이라기 보다는 黙示的인것을 明示的으로 認定한 差異에 不過하기는 하다.

그러나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은 南北韓関係의 正常化를 論理的 前提로 하는 이상 南北韓関係를 어떠한 関係로 設定할 것이며 이때 事実上의 政権存在의 認定과 国際法上 政府承認 또는 国家承認과의 明確한 区別限界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7.4共同声明으로 本格化되었던 南北対話에 있어서는 7.4共同声明의 現実的 内容이 相互 武力不使用과 비방 중지고 事実上 共存을 暫定的으로 約束한데 있으므로 相互 呼称과 비방중지라는 線에서 対北韓関係를 国内的으로도 限定지었다. 이번 6.23宣言에서는 7個項目의 하나로 内政不干渉을 내세웠다.

이러한 소극적 관계외에 적극적관계의 設定을 여하히 할 것인가와 이에 기초한 国内의 安保 反共体制의 設定을 여하히 할 것인가에는 많은 問題가 있을 것이다.

東西独関係에 있어서는 国際的으로 두개의 独逸로 認定되고 유엔同

時加入이 実現되었다. 그런데 独逸에서의 事情과 経過가 얼마만큼 韓国에서 再現될 것인가 또는 그것이 可能하며 바람직한가에 대한 分析이 重要할 것이지만 「우탄트」유엔 事務総長이 유엔会員国普遍性의 原則(Principle of membership university)을 主唱한 이래 分断国의 유엔同時加入論이 国際的으로 지지받고 있고 強大国들의 利害関係가 여기에서 一致되고 있기 때문에 独逸과 그 与件을 달리하고 있는 韓国에 대해서도 独逸의 패턴(Pattern)을 再現시키려는 圧力으로 作用할 것은 分明하다.

西独首相「브란트」가 東独의 国際的 유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단계로서 어떤 条件下에 東独의 유엔加入을 反対하지 않을 것이라고 発言한 것은 1970年 8月 12日 소련과 不可侵条約을 체결한 6個月후인 1971年 2月 21日이었다.

이에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取함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国家的 単一性이 民族的 単一性과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며 複数国家가 存在한다는 것이 반드시 民族的 単一性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立場에서 東独을 事実上의 政府로 인정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미 그 이전에 東独에 대한 呼称問題에 있어서는 西独만이 独逸의 唯一代表国家이고 東独은 「소련의 占領地域」에 불과하며 東独政府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一貫된 태도를 수정하여 이 「소련占領地域」이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은 것이 1966年 3月의 「平和提案」을 전후하여서이고 그 대신 그 이후로는 東独의 正式名称인 独逸民主共和国(DDR)에 「所謂」라는 말을 붙여쓰다가 그해 末

「키징거」 政權이 成立된 뒤부터 「所謂」라는 말도 없이 独逸民主共和国이라고 불러왔다.

「브란트」의 전기한 発言이 있기 전해인 1970年 3月 「에어프르트」東西独 首相会談에서 東独은 国際法에 基礎한 平等한 両独関係의 樹立, 西独의 全独逸代表權 主張 및 「할슈타인」原則 포기, 軍事予算半減 등과 함께 유엔加入을 提議했었으며 이에 대해 西独은 相互領土尊重, 武力不行使 및 紛争의 平和的 解決, 独逸, 伯林에 관한 4大国의 權利義務의 존중, 独逸分割에 의한 国民의 苦痛을 輕減시키기 위한 両独間의 人的交流, 経済, 技術, 通信, 交通 등 分野에서의 調整協力強化 등을 제의하고 유엔加入에는 言及하지 않았다.

그후 71年 2月 21日의 発言에서도 「西独国民들에게 모든 重要한 実際的인 問題들을 모두 合理的으로 解決할 수 있게 된다면 最終的인 단계로서」라는 条件下에 東独政府의 国際的 유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는 유엔加入도 反対하지 않겠다고 했다.

両独間의 基本条約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東独側의 主張인「東独의 国際法上, 最終的, 決定的 承認」을 거부하고 西独은 独逸의 1個国家이기 때문에 東独을 하나의 外国으로 承認할 수 없다고 主張하여 相互의 駐在機関을 大使館으로 하지 않고 代表도 外交使節이라 呼称하지 않으며 両独関係를 「内的 特別関係」라는 国際法上 새로운 概念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現在 유엔 会員国中에는 서로 承認하고 있지 않는 国家가 많은 것도 国際的 承認問題가 유엔同時加入의 장애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전기한 東西独関係외에 이러한 国家間의 関係에서도 앞으로의 南北関係에 대하여 示唆하는 바가 많다.

나. 6.23宣言이 統一努力의 拋棄와 分断의 永久化를 가져오지 않을가하는 우려와 체념을 낳을 염려가 있다.

6,23宣言中에서는 第1項에 「祖国의 平和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継続 傾注한다」고 했고 第3項에서도 「南北共同声明」에 立脚한 南北対話의 具体的 成果를 위하여 継続 努力한다」고 하였으며 第5項 同時유엔加入 불반대의 条件으로서도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라고 못박고 있고 「北韓関係事項은 統一이 成就될때 까지의 과도적 期間中의 暫定措置」임을 分明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韓国이 南北間의 対話를 開設했을 때부터 그것이 韓半島에서 高潮되어온 緊張의 主原因인 北韓의 対南赤化企図가 拋棄되었다는 実証 또는 対話를 通하여 모든 韓国의 問題가 合理的으로 解決될 수 있다는 実証에서 取해진 것이 아니라 赤化企図를 拋棄시키고 緊張을 해소시키는데 直接的인 目的이 있었다.

따라서 南北対話가 열렸다고 해서 韓半島의 問題가 모두 쉽사리 対話로써 解決되리라는 期待는 애초부터 가질 수 없었다.

南北赤十字会談은 1年間의 予備会談끝에 議題 다섯가지를 確定짓고 本 会談을 開催하기에 이르기는 했으나 北韓側이 会談進行의 先決条件으로 韓国에서 共産党의 活動을 용인하도록 反共法, 国家保安法등을

철폐하라는 要求를 제기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한 本会談을 열릴 수 있게 했고 全国民에게 統一에의 期待를 가져다 주었던 7.4共同声明과 이에 의한 南北調節委員会 会談에서도 北韓側이 軍事, 政治問題의 優先解決을 要求함으로써 対話進行에 난관을 造成하더니 급기야 지난 8月 28日에는 対話를 中断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7.4共同声明 自体가 그 文面의 대부분이 平和統一에의 意志表現으로 충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実際에 있어서 体制와 理念의 差異를 극복한 平和統一이란 民族感定에 基礎를 둔 民族의 염원이고 장구한 시일에 걸친 努力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目的으로서 実現 可能性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는 그 目的에 이르기 위한 전기의 잠정적 과정으로 表示된 両体制의 平和的 共存이 더욱 直接的인 目的으로 評価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7.4共同声明과 그후의 調節委員会와 赤十字会談代表의 相互訪問은 統一에의 期待를 높였고 성급한 統一論의 대두는 기존의 反共態勢에 混乱과 해이를 招来할 可能性마저 없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否定的 面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肯定的으로는 韓民族의 統一意志를 높이고 적대감정을 불식해나가는 民族単一性 維持에 전기를 마련했으며 언제고 民族의 努力에 따라 平和的 統一을 達成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갖게했다.

그런데 6.23宣言은 7.4共同声明에서 黙示的으로만 表現되었던 과도적 共存의 目標가 具体的으로 政策化되고 統一에의 期待는 좀더

먼 장래의 目標라는 事実을 表面化시켰다.

이것이 보다 現実的이고 具体的인 段階의 明示요 7.4共同声明의 内容과 하등 모순되거나 後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現在 韓国民의 여론속에 여전히 상당한 比重으로 존재하는 성급한 낙관론과 지나친 비관론에 각각 큰 충격을 주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러한 쇼크가 統一에의 체념 또는 지속적인 統一意志의 弱化로 나타날 可能性이 많은 것은 경계를 요한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우리가 統一을 願하지 않고 分断을 永続化시키려한다는 北韓側의 적반하장격인 政治선전으로 不利한 立場에 놓일 우려가 있다.

다. 北韓의 対外政策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세적 입장에서 나온것이 아니냐 또는 強大国의 現状固定化政策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를 낳게할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1年 2月 2日字의 崔外務長官의 記者会見을 通하여 分断国 유엔同時加入의 無差別的 適用에 反対한다는 態度를 明白히 하였고 모든 国際機構에서 北韓의 進出意図를 막아왔다.

한편 北韓은 1972年에 접어들면서 閉鎖的 政策을 쓰고 있던 것을 戦術的으로 転換하여 보다 門戸를 開放하는듯 微笑外交로 招請外交에 拍車를 加하고 지금까지 韓国問題의 유엔上程을 反対하여 오던 態度를 돌변하여 유엔에 無条件招請을 要請하였으며 国際社会의 平和무드에 便乗하여 平和統一攻勢를 積極化하여왔다.

이와같이 北韓은 国際情勢의 変化에 따라 새로운 与件에 対応하는

새로운 戰略과 戰術로 多樣한 統一方案을 展開시키고 急変하는 国際緊張緩和趨勢에 迎合할 수 있는 平和統一攻勢를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対外的으로 내걸고 있는 「스로건」은 항상 流動的으로 変化에 적응하는 伸縮性을 보이는 듯한 「제스추어」에 퍽 능하다.

그런데 오늘날의 国際社会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데오로기」를 내세우던 時代는 이미 지나가고 東, 西 어느 陣営을 막론하고 自国의 国家利益增進을 위하여는 相対国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通商拡大를 위한 적극외교와 現実認定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韓国은 合法性과 唯一代表権만을 고집하는 外交政策上의 保守性을 탈피하여 1972年부터는 機動性 있는 「유엔」外交와 共産圏과의 関係模索 등 「安保総力外交」를 지향하고 소극적인 「유엔」에서의 韓国問題討議延期를 再検討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変化와 政策変化는 그것이 国際社会의 作用과 反作用(action and reaction)의 相互作用上 不可避하고 오늘날의 緊張緩和와 和解무드 및 現狀固定傾向에 어떻게 適応하면서 自国의 位置와 目的을 추구할 것인가가 外交政策決定의 Pattern임에도 불구하고 国内的으로는 政府의 統一政策에 確固한 「비죤」과 一貫性있는 原則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를 일으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事実이다.

따라서 国際情勢의 変化와 強大国関係의 추의에 속히 能動的으로

態勢를 갖추어 나가는 流動性을 견지하는 問題와 国内的으로 国民들의 急激한 変化에의 쇽크를 감소시키고 国民의 国論統一에 의한 団結과 지 지확보의 問題를 同時에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는 負担이 있다.

6.23 宣言은 그 政策転換이 크고 急激한 것이므로 그 国内的 소화와 態勢整備에도 그만큼 負担이 있을 것이 予想된다.

더구나 北韓이 즉각 「유엔」同時加入을 反対하고 対話를 中断시키면서 韓国에 대한 비방을 再開한 것도 国内安保態勢에 균열을 야기시키자는 対南戦略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6.23 宣言으로 얼마동안 共存体制가 形成될 可能性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休戦状態가 終結되고 유엔軍이 철수하여 安保上 韓半島에 힘의 진공상태가 造成될 염려가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소련은 美国의 資本과 技術에 의한 経済開発과 「시베리아」開発을 本格化시키고 있기 때문에 美国과 和解하고 美国의 信頼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번 中東戦에서도 그 면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또 美国의 利害関係가 깊이 関与된 곳에서 協助的 態度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 地域이 独逸이며 다음은 極東이다. 、 그러므로 東西独의 関係正常化와 유엔同時加入이 美蘇의 協助에 의한 独逸問題解決의 主要方法이었으며 이 方法을 그대로 韓半島에 適用하려하는 것은 必至의 事実이다.

소련의 이러한 態度는 日本과의 講和를 위하여도 나타나고 그것은 北韓이 日本에 대하여 好意的으로 됨으로써 順調롭게 될 것이며 나아가 韓国과 和解함으로써 可能해질 것이다.

한편 中共은 美国과의 和解를 通하여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감하고 美国 및 日本 등 資本主義国家와의 접촉을 통한 経済開発을 서두르고 있다.

美国 및 日本과의 和解하고 関係를 増進시키기 위하여는 北韓이 南韓과의 敵対関係를 解消해야 한다. 中共이 美国과의 敵対関係를 解消하자면 1953年 韓半島에서 各各 1方当事者로 되어 있는 休戦協定을 変更시키고 戦争終結措置를 취하는 길이다.

理論的으로는 韓国戦争의 終結措置가 취해지고 이 戦争終結措置의 하나로서 또는 그 結果로서 南北韓의 同時유엔加入이 実現되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中共 및 소련과의 和解를 바라고 中,蘇紛争의 초연한 措置에서 影響力을 행사하려고 하는 美国이 이러한 好機를 놓칠리 없다.

그렇게 보면 現在의 北韓의 경직된 対韓国態度도 今年 유엔総会가 끝나면 더이상 고집할 수 없게될 공산이 크다. 南北韓関係의 正常化와 緊張緩和가 急進展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를 促進하기 위하여 주한「유엔」軍의 철수가 앞당겨질 可能性도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南北韓의 軍事力減縮의 圧力이 클지도 모른다.

따라서 休戦協定에 代置될 南北間의 不可侵条約 또는 平和条約을 체결할 必要性이 発生하게 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必要할 것이

며 美軍철수 또는 軍事力減縮이 불가피하게 될 때 이에 대한 대비책 특히 国内安保対策과 国民들의 충격과 불안을 해소시키는 対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감군에 따른 失業対策까지도 미리 세워두어야 할런지 모른다.

마. 統一 및 安保에 관한 教育, 弘報上에 混乱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그것은 먼저 「統一」 및 「反共」의 概念上에서 나타나고 다시 接近方法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물론 統一의 궁극적 상태는 完全한 単一政治体制下의 統一임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分断状態가 長期化되고 異質度가 심화됨에 따라 短時日内에 完全히 統一된다는 것은 武力統一을 否認하는 이상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統一의 意味도 점진적으로 接近해가는 하나의 段階的 過程 또는 機能的 統合程度를 包括하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래의 教育, 弘報에 있어서는 統一의 概念에 관한 이와 같은 理解의 伝達이 不充分했음이 事実이다.

그러므로 6.23 宣言에서 파악되는 統合過程으로서의 競争的 共存과 같은 接近方法과 統一의 概念은 国民들이 종래부터 가져온 完全政治的 単一体의 概念과는 混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反共」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6.25 戦争時의 反共概念 및 反共精神의 行動化와 共存時代 및 統合過程時의 그것들이 混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統一의 意味 또는 概念의 修正이 不可避하다. 단기간내에 획일적으로 単一政治体制下의 統合이란 의미의 統一은 不可能하다는 事実을 알릴 必要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単一政治体制下의 統一을 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거나 政治宣伝上 不利한 立場에 놓이지 않아야 하고 国論을 分裂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無条件的 反共教育, 弘報도 理論的 비판능력을 제고시키는 方向으로 発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6.23宣言의 伝達弘報過程에서 우선 문제될 것은 이러한 높은 次元의 理解를 가져다줄 수 있는 教育過程 및 伝達方法이 미비한데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統一論議가 閉鎖的이었고 統一政策樹立에의 参與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発展과 変化에의 유동적 적응성이 배양되지 못했다.

앞으로 北韓의 国際機構加入이 増加됨에 따라 또 共産圏과도 交流를 増大하게 됨에 따라 北韓住民 또는 共産国住民들과 国内外에서 民間人들이 接触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므로 일관성있는 統一, 安保에 관한 教育 弘報가 더욱 요청된다.

이상에서 6.23宣言으로 말미암아 또는 6.23宣言에 명시된 外交政策의 実現으로 말미암아 国内安保態勢에 직접 간접으로 惹起시킬 問題点을 열거하였는데 이것이 특히 접적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Ⅲ. 6.23宣言이 接敵地 住民에게 미칠 影響

1. 接敵地住民의 社会的 背景과 意識構造

1953年 7月 27日의 休戦協定으로 設定된 非武装地帯 이남인 接敵地域의 地政学的, 経済的, 社会的 与件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京畿道에 속한 西部海岸地方과 平野地帯는 38° 線 以南地域으로 休戦後 主로 美軍이 担当하던 戦線地域이다.

地政学的으로 볼 때는 北韓共産主義의 支配下에 있었던 일은 없고 서울과 近距離에 있으며 판문점으로 南北通路를 통하여 그동안 制限的이나마 北韓과의 関係가 継続 維持되던 地域이다.

経済的으로 海岸地方의 漁業과 平野地帯의 農業이라는 一次産業이 主産業이고 2次 産業은 미미하며 3次産業은 駐韓美軍部隊를 相対로 한 商業 써어비스업이 파행적으로 発達되었었다.

이에 따라 社会的으로 住民의 構成은 월남피란민과 休戦後의 移住民이 原住民과 比等한 수를 차지하며 人口増加와 移動이 심하다.

接敵地域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中部 및 東部地域은 行政区域上으로는 主로 江原道에 속해 있으며 高山地帯가 많다.

地政学的으로는 38° 線 以北地域으로 解放後 北韓共産統治下에 있다가 休戦後 南韓에 収復된 地域이어서 両体制를 중첩적으로 경험하였으며 北韓의 武力浸透에 대한 취약지구로 되어 있다.

經濟的으로는 高冷地農業과 林業, 鉱業 그리고 東海岸의 漁業 등 1次産業이 위주가 되어 全体産業의 67.8%를 차지하고 2次産業은 2.5%에 不過하며 3次産業은 全国対比 約2倍에 이르는 23.1%를 차지하고 있다.

社会的으로는 먼저 住民의 構成을 보면 6.25動乱이전부터 居住해온 原住民과 6.25이후 北韓으로부터의 避難民과 그후 南韓 各 地域으로부터의 移住民 그리고 軍人과 그 家族으로 4大別되며 그 数에 있어서도 大体로 비슷한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接敵地住民의 社会的 背景에서 一般的으로 추출되는 住民의 意識構造를 다음과 같이 特徵지울 수 있다.

가. 戰線地方이라는데서 오는 不安感과 疎外感이 널리 支配하고 있다.

休戰後로도 非武裝地帯에서 또는 非武裝地帯를 넘어서 北韓의 武力挑発이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 後方地域까지 武装 공비가 남침하는 事態가 많았기 때문에 住民의 不安感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全面再南侵의 위기감이 불식되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 地域을 포기하고 後退할 것이라는 疎外感마저 겹쳐있다.

不安感과 疎外感은 또한 經濟開発計劃의 遂行過程에서 이 地域에 아무런 注目할 만한 産業建設이나 投資가 없었다는데서 더욱 增大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不安感과 疎外感은 南北対話의 開設과 同時에 北韓의 武力挑発이 현저히 減少되면서 어느정도 해소되어온 것이 事實이며 7.4

共同声明과 南北調節委会談이 서울과 평양에서 계속되면서 현저한 変化를 나타냈음이 確実하지만 아직도 가장 뚜렷한 意識構造의 저변을 形成하고 있다.

7.4 共同声明이 発表된 2個月後인 1972年 9月에 이 地域에 대하여 江原大学 統一問題研究所에서 実族한 調査結果에서도 이러한 現状은 分明히 나타난다.

즉, 住民의 이 地域에의 継続 居住 및 定着에 대한 意見을 물은 결과「継続 居住할 생각이다」라는 對答을 한 住民이 応答者의 31.8%이고 「오래 居住할 생각이 없다」가 36.8% 「언제든지 移住하려고 한다」가 25.8%에서 定着感을 가지지 못한 住民이 무려 3分의 2를 넘고 있었는데 이것도 南北対話 이전보다는 減少된 숫자였다.

그리고 移住하려는 原因으로 들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이 「不安하여서」 「発展性이 없어서」 「教育, 文化가 뒤떨어져서」라는 것이다.

나. 住民間의 同質性과 共同意識이 不足하고 相互不信風潮가 強하다.

이러한 現状은 이 地域住民의 異質的 構成과 파행적 産業構造 및 頻繁한 人口移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한 바와 같이 原住民, 避難民, 移住民, 그리고 軍人과 家族 등 一時 居住人 등으로 大別되는데다 그들이 각각 종사하는 職業을 보면 原住民은 主로 영세 農業에 従事하고 있고 避難民과 移住民은 商工業에 그리고 漁業과 鉱業 및 軍部隊 주변의 각종 서비스업은

移住民과 一時 居住人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現狀은 住民들의 生活方式과 思考方式의 相異를 초래하고 所得에 있어서도 격화가 심하기 때문에 共同体的 結束이 약하고 相互間의 異質性과 不信感이 강하다.

또한 人口增加率은 異例的으로 높아서 1968年度이래 5.0%선을 維持하고 있으며 移動도 심하여 전기한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結果的으로 不安定한 社会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駐屯軍部隊 특히 美軍部隊에 기생하는 人口群은 定着된 生活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행적이며 심지어 犯罪的인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定着住民과의 異質感은 어떤 住民보다 심하다.

또 海岸地方의 漁民中에는 東海岸과 西海岸을 막론하고 拉北経驗이 있는 어부가 多数 包含되어 있는데 이들과 그 家族은 体制와 理念에 대한 어떤 信念을 갖기를 두려워하고 思想問題에 대하여 극도의 기피적 태도 내지 누구도 믿지 않는 不信態度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인근 住民全体에 미치는 影響이라든지 이들을 調査하고 善導하는 수사상에 일어나는 諸般事件은 住民의 共同体意識의 形成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確実하다.

그리고 성어기를 따라 이동하는 어로종사자와 이들을 따라 이동하는 住民의 数도 많아 「거진」과 같은 어항의 境遇에는 約 半数의 住民이 非定着狀態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전기한 江原大学統一問題研究所가 행한 調査結果를 보면 調査対象者 500人中에서 6.25動乱 이전부터 継続 居住해오는 자가

23.8%인데 비하여 6.25이후 5.16이전에 移住해온 자가 37%, 그리고 5.16후에 이주한 자가 38.4%였다.

다. 不滿과 체념이 누적되어 있다.

그 가장 큰 原因은 落後된 産業構造와 低所得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全国的으로 보아 国民所得에 있어서 最下位에 속하는 이곳 住民의 所得水準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地域에 대한 開発投資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経済的으로나 社会的으로 이 地域에 대한 政府와 企業의 無関心 그리고 住民의 이로인한 意慾喪失을 짐작할 수 있다.

調査結果를 보면 中等教育 以上의 学歴을 가지고 職業을 가진 者를 対象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月平均 家口 総収入은 2万7千원선으로 나타났으며 大部分의 応答者가 머지 않은 將来에 이 地域과 自身에 큰 発展을 期待하지 못한다는데 意見을 모으고 있었다.

이들의 不滿과 체념은 比較感에서 더욱 上乗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近来 「메스콤」의 発達로 서울 등 都市地域을 비롯한 他地域의 発展, 建設上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다 観光 「레져붐」을 타고 이 地域에도 観光客들이 모여들게 됨에 따라 그들의 사치한 生活을 실제 이상으로 자기들과 동떨어진 높은 水準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강하다.

여기에다 政府의 弘報政策은 이곳 住民들에게 韓国의 発展相을 소

개항에 치우쳐 있는 反面에 이들이 直接, 間接으로 接하고 있는 北韓側의 宣伝은 韓国社会의 貧富隔差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農漁民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影響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事実은 住民들의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에 대한 認識에서도 나타난다.

「民主主義란 말을 들으면 제일먼저 생각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라는 質問에 대한 応答者의 対答中 그 頻度順으로 보면 大部分이 肯定的인 낱말인 「自由」 「人權尊重」 「平等」 「平和」 「主權在民」등을 들고 있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否定的인 単語로서 「不平等」과 「無秩序」를 든 住民의 認識이 注目되고 「共産主義란 말을 들으면 제일먼저 무슨 낱말이 생각 납니까」라는 質問에 대하여 「独裁」 「不自由」 「恐怖」 「強制労動」 「人權유린」등 否定的 概念이 大多数인 反面 「生活均等」 「富者도 貧者도 없다」는 肯定的 낱말을 든 소수주민이 있었다.

또한 共産治下에서 生活한 経験이 있는 住民이 45.2%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나빴던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独裁」 「不自由」 「相互不信」 「人權유린」등이 많았고 그런 중에도 잘한다고 생각한 점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不労所得者와 失業者가 없다」 「義務教育制度」 「사치와 부정부패가 없다」 「団体的 協同」 「山林緑化와 建設」등을 들었다.

보다 具体的으로 北韓과의 競争에서 우리의 弱点으로 指摘한 것을 보면 「理念, 精神武装이 弱함」이 26%, 「사치 낭비와 부정부패」

21 %, 「個人主義」 12 %, 「貧富隔差」와 「放従 無秩序」가 각각 10 % 強이었다.

이상의 住民의 輿論上에 나타난 不満 내지 우리 体制의 弱点으로 指摘한 것이 主로 所得隔差 및 이와 直接, 間接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不満과 체념의 결과 단번에 一攫千金을 꿈꾸는 사행심을 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政府政策에 대한 参与意識이 不足하고 無関心과 被動的 傾向이 뚜렷하다.

住民들이 政府当局의 施策에 어느정도 参与意識을 가지고 있고 또 政府의 施策에 不満이 있거나 被害를 입었을 때 어떤 態度를 보이는가를 알기 위하여 전기한 調査에서 「政府機関에 진정을 해본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되고 잘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質問을 한 결과 政府機関에 한번이라도 진정을 해본 일이 있다는 사람이 7.4 %에 不過하고 절대다수가 해본일이 없다는 応答이었다.

해본일이 있으나 잘 안되었다는 応答者와 해보지 않았다는 応答者들이 「왜냐」는 반문에 대한 対答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公務員의 無事安逸主義와 非協助」 「行政에 관하여 確告한 政策이나 基準이 서있지 않은것 같다」 「特定人이나 強者를 위해서 国家行政이 処理되는 것 같다」 「납득할만한 理由의 제시가 없이 묵살된다」 「法的 根拠없이 裁量権을 남용한다」등이 많았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住民들의 不平 不滿과 체념이 많다는 事例도 되며 한편으로는 政府政策에 대한 無關心과 비판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도 나타낸다.

이러한 現象은 接敵地域의 諸般与件 때문이겠지만 이 地域에 대한 지금까지의 政府政策의 주된 비중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変遷되어 왔는가를 일별해 보아도 그 原因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接敵地域에 대한 政府政策의 비중은 오로지 軍事目的優先과 反共精神強化에만 力点을 두었으며 그때 그때의 事情에 따라서 수시로 変化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接敵地域에 대한 管轄機關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또 각 地域別区劃에 따라서 相異하게 되었으며 行政担当者가 누가되느냐는 自然人에 따라서 까지 수시로 달라졌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이 地域에 대한 長期的, 巨視的 計劃이 樹立되어 執行되지 못했고 따라서 一貫性있는 基本方向이 設定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作戰上의 目的을 위하여」라든가 「反共態勢確立을 위하여」라는 두가지 理由는 同地域에서는 如何한 事態나 施策에 있어서도 絶対的인 權威를 가져왔으며 그것에 대하여는 異議의 提起가 許容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事態가 長期間에 걸쳐서 継続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濫用되거나 상투적으로 使用되었기 때문에 住民들은 한편으로는 強迫觀念에 의한 노이로제적 現象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에 의한 체념과 無感覚狀態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地域을 떠나고 싶어하는 公務員 및 企業体 職員 등의 사명 감없는 근무태세도 그 원인등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마. 투철한 反共精神과 불투명한 思想이 混在하고 있다.

접적지역은 反共第一線이라는 地域的 位置에다 過去에 共産治下에 있었던 地域이라는 歷史的 事実에다 北韓의 対南 宣伝 浸透의 취약지구라는 特殊性 때문에 前記한 바와 같이 모든 施策의 초점을 反共態勢確立과 反共精神함양에 두었던 결과로 이 地域住民의 反共態勢는 外形的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투철할뿐만아니라 内容的으로도 生理化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住民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北韓으로부터의 避難民은 共産主義의 박해를 받은 越南 동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反共信念을 가지고 있다.

또 이 地域에 대한 反共教育과 弘報의 철저는 다음 事実로도 알수 있다. 즉, 教育当局이 내세운 가장 큰 스로건이 「한편 공부 한편 반공」이고 1学校 1勝共舘設置原則에 따라 71年 까지에 1,880 個의 勝共舘이 設置되어 있다.

또 再建村을 建設하여 철원, 금화, 인제 등지에 71年까지 520세대의 集団営農을 定着시켰고 취약지구 対策事業으로 산악지대의 독립가옥 2,868세대를 移住시켜 集団化시켜 보호하기 위하여 71年까지 1,559동의 住宅을 建立하여 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集団営農化는 反共을 生活化하는 段階에 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곳 住民들은 思想問題에 대하여 극도의 忌避的인 態度를 보이는 모순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共産主義와 自由民主主義라는 相反된 両体制를 중첩적으로 체험하면서 南北韓間의 冷熱戰속에서 理念과 思想때문에 犧牲된 住民을 가까이에서 너무도 많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一身의 安全을 위한 保身的 기회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評価된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은 한걸음 나아가서 価値中立的인 불투명한 사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反共思想을 자칫하면 形式的 口号에 그치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잘살기 위해서라면 자유는 없거나 제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자유에 대한 態度를 나타낸 住民이 4分의 1 이상인 25.2%를 차지하고 있고 「統一만 된다면 어떤 체제라도 상관 없다」와 「양체제가 混合된 체제하에서 統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합하면 역시 비슷한 4分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이 地域住民의 全体的인 결속을 해치는 異質感을 높이게 되고 정신무장과 国民総和의 견지에서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政策方向은 오히려 색출과 엄단이라는 강압적 방향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효과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評価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自己保存的인 이러한 態度에 대하여는 보호와 說得 그리고 確実한 보장만이 신념과 귀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傾向을 나타내는 住民의 대다수가 教育水準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체제와 이념에 대한 비판능력이 부족하고 현실의 생활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2. 統一問題에 대한 伝達弘報의 効果와 輿論

일찌기 「크리스월드」(Cri swo.ld)는 「P.R이란 公衆의 態度를 評価하여 어떤 個人이나 어떤 組織体의 方針이나 節次를 公共利益에 一致시키고 그리고 公衆의 理解와 承認을 얻기 위한 活動에 관한 計劃을 実行하는 管理機能이다」라고 定義하였다.

이상의 定義에서도 알 수 있드시 統一問題에 대한 政府의 伝達弘報의 効果는 政府의 方針이나 節次가 얼마나 公共利益에 一致되었느냐 그리고 公衆의 理解와 承認을 얻었느냐는 두가지 基準에서 評価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政府의 統一에 대한 方針과 統一로 나아가는 節次를 接敵地 住民의 公共利益과 一致시킬 수 있었으며 그들의 理解와 承認을 얻어 支持와 協助를 유발시키도록 輿論을 調節하였느냐는 것이 된다.

첫째 基準인 政府의 統一政策이 얼마나 接敵地住民의 公共利益과 一致되는 것으로 住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平和統一政策으로 말미암아 이 地域의 최대문제인 不安感을 해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肯定的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南北対話後 特히 7.4共同声明後 달라진 것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

음에 48%의 応答者가 달라졌다고 対答했으며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상호 비방」「무력도발」「간첩남파」「긴장상태」「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등이 없어졌다고 했으며 「정착의사」「発展可能性」「토지가격등귀」「統一希望」「家族相逢希望」등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고 対答했다.

그러나 被調査者의 過半数인 52%는 아직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政府의 南北対話와 統一政策이 어느정도 実効를 거두리라고 보느냐는 기대가 1972年 6月의 調査에서 39%이던것이 1973年 9月의 調査에서 53.4%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회의적으로 보는 주민이 근 半数에 이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착계속의사가 31.8%에 불과 한점 등은 政府의 統一問題에 대한 伝達弘報에 있어서 이 地域의 公共利益과 一致시키는 計劃과 実施가 不足했다는 事実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平和統一政策에 의한 南北対話와 漸進的 接近方法은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第一次的 目標로 삼고 있고 이것은 가장 直接的으로는 接敵地에서의 緊張解消라는 同地域 最大의 公共利益과 直結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地域 住民에 대한 伝達弘報에 있어서 이 地域의 安全과 発展可能性에 대한 内容이 強調되지 못했으며 他地域에서와 달리 特殊한 내용의 弘報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南北対話의 第一段階로 推進해 오는 離散家族을 찾기 위한 南北赤十字会談만 하드라도 이산가족의 最大数가 이 地域에 거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統一政策을 이 地域의 公共利益과 一致시키는 弘報에

있어서는 所期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事実은 이 地域住民들이 南北赤十字会談과 7.4共同声明 등 政府의 平和統一方針과 接近方法에 대해서 알게된 伝達 媒介体가 무엇이었느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그들이 이러한 会談과 声明을 알게 된것이 라디오를 듣고가 38.8%이고 신문이 38.7%, T.V가 11%로서 約 90%를 점하고 있고 책자나 유인물에 의한 해설 또는 행정기관이나 이웃의 설명을 들은 것은 불과 3.5%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統一問題를 이 地域의 特殊性과 결부시키고 이 地域의 公共利益에 미칠 影響에 대해서 아무런 伝達弘報에 접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事実은 이 接敵地域이 前述한 바와 같이 統一政策으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과 恵沢을 즉시로 받았고 또 계속받을 地域임과 동시에 그 地政学的 特殊性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両体制로 중첩적으로 経験하였기 때문에 体制間의 모순과 차이 및 長短点을 分断比較할 수 있는 地域이고 따라서 分断과 統合에 관한 제반 모델케이스를 提示하는 地域이며 南北接触과 交流의 増大를 통한 統一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南北의 交流 競争地域이 될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韓国의 自由民主主義의 優秀性을 과시할 展示場으로 開発될 것이 필연적이라는 事実과 産業 経済的으로 보아도 民統線 漁撈阻止線 등의 제약조건이 解除될 수 밖에 없고 観光, 林産資源의 적극 開発과 南北経済交流 및 韓国의 経済的 번영을 과시할 필요에서도 제반 투자

와 開発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事実 그리고 南北間의 国民 支持競争에 있어서 帰属感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제반 우대가 예상된다는 事実 등 어떤 地域보다도 統一政策과 地域住民의 公益이 一致함을 알 수 있다.

結局 現在까지의 伝達弘報의 効果는 그 公共利益과의 一致感을 불러일으키는 側面에서 볼 때 크게 미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基準인 住民의 理解와 承認을 얼마나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支持와 協助의 輿論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統一問題에 대한 住民의 関心度는 他地域에 比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分断으로 인한 비극을 가장 많이 체험했고 冷戦과 熱戦에 의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았으며 現在도 가장 困難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分의 1의 住民이 월남피란민이기 때문에 住民들의 統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전기한 調査結果를 보면 南北赤十字会談에 대하여서와 7.4共同声明에 대하여 들었다는 住民이 94%로서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조속한 統一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住民 역시 절대 다수인 94%였다.

물론 統一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없겠지만 이 地域住民의 관심과 열망은 특히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住民들의 理解度를 보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심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調査結果 赤十字会談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고 스스로 対答한 住民이 31%였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応答者가 56.4%로서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対答한 住民이 87.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별로 아지 못한다」와 「거의 모른다」가 12% 에 이르고 있다.

7.4共同声明에 대하여는 声明発表 2個月後인 1972年 9月의 調査에서 볼때 이보다 약간 낮아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応答者가 26.2%이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9.8%, 합하여 86%가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対答했으며 「별로 잘 모른다」「거의 모르고 있다」가 13%이었다.

또한 6.23선언에 대하여는 동 선언이 발표된 4월후인 1973年 10月의 調査에서 보면 이보다 더욱 낮아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応答者가 23%이고 「어느정도 알고 있다가 44% 합하여 67%가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対答하였다.

그러나 이 数字는 어디까지나 応答者 스스로가 理解하고 있다는 정도의 표시고 실제로 이들이 理解하고 있는 정도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6.23宣言의 境遇에 그 内容이 한마디로 무엇이냐에 대하여 6.23宣言中에 包含된 内容을 제대로 언급한 応答者는 전체의 25% 에 불과 했음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시말하면 충분히 알고 있다는 応答者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範

囲에서 실제의 理解度를 추정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支持度와 期待度를 보면 伝達弘報의 効果를 더욱 具体的으로 추정할 수 있다.

赤十字会談에 대하여 1972年 5月의 調査에서는 「이것이 統一의 基礎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応答者가 22.7 %로서 이들은 統一政策에 대한 支持와 期待를 表示한 반면 「赤十字的 使命에 그칠 뿐이다」가 39 %로서 어느정도의 支持와 期待를 表示하여 그 합계인 61.7 %가 긍극적이고 나머지 38 %는 「아무러한 진전도 통일도 期待할 수 없다」고 부정적 태도를 표시하였다.

그후 7.4共同声明이 発表되고 赤十字本会談이 열린 후인 1972年 9月의 調査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에 또는 상당한 期間만 경과되면 赤十字会談의 目的을 達成할 것이다」라고 肯定的인 態度를 表示한 応答者가 64.4 %로 増加하고 否定的인 態度는 2分되어 「現在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회의적 態度 25.5 %와 「안될 것이다」는 여전한 부정태도 7.4 %로 나타났다.

7.4共同声明에 대한 支持度와 期待度를 보면 「매우 환영하며 큰 期待를 걸고 있다」고 応答한 住民이 43.2 %이고 「환영하지만 큰 期待를 걸 수 없다」고 支持하지만 期待는 회의적으로 보는 住民이 역시 꼭같은 43.2 %로서 상호대조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態度를 住民의 構成과 결부시켜 보면 6.25전부터 계속 居住해 오는 原住民들이 보다 큰 支持와 期待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6.25후에 北韓으로부터 移住해온 避難民중에 회의적으로 보

는 住民数가 많았다.

즉 原住民의 期待와 회의의 비율은 46% 대 34%인데 대하여 피난민이 期待와 회의는 42%대 47%였다.

궁극적인 統一에 대한 期待와 方法 및 形態에 대해서는 「머지 않아 統一이 될 것 같다」는 극히 낙관적인 견해 즉 성급한 期待를 하는 住民이 10.4%이고 이와 反対로 「統一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住民이 11%로서 거의 같은 数의 주민이 극단적인 견해로 대립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신중한 기대론이 43%이고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견해 즉 언제고 통일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낙관적인 기대론을 가진 사람이 53.4%이고 비관적인 회의론을 가진 사람이 46%로서 統一에 대한 期待는 相互対照的으로 両分되는 가운데 낙관적인 期待度가 약간 우세하여 過半数線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4個月前인 1972年 5月中 즉 7.4共同声明이 発表되기 전에 행한 調査에 있어서는 이 낙관론과 비관론의 비율은 23%대 77%였음을 생각할 때 7.4共同声明이 이 地域住民에게 미친 影響이 얼마나 크며 統一에 대한 期待를 갑자기 높였는가를 알 수 있다.

統一의 方法에 대해서도 7.4共同声明이전 赤十字予備会談만이 進行되던 1972年 5月의 調査에서 강대국의 협상에 의한 統一(27%)

이나 무력행사에 의한 統一(25%)보다 자주적인 南北接触에 의한 統一(42%)을 期待하는 住民이 많았지만 아직 過半数에 미치지 못했음에 비하여 7.4共同声明후인 1972年 9月의 調査에 있어서는 그 支持도가 86.4%로 높이 상승했다.

다만 期待度는 이에 미치지 못한 43.2%에 머물러 약간의 상승을 보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統一의 形態에 대해서는 「統一만 될 수 있다면 政治体制나 思想은 어떠한 것이라도 별 상관이 없다」는 体制無観의 見解가 5.6% 「民主主義와 共産主義가 적당히 混合된 体制로 統一되는 것이 좋다」는 体制中立的 견해가 17.2%로서 약 24%의 住民이 体制中立的인 態度이고 「공산주의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현재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体制固守型이 73%로서 절대과반수가 体制를 統一보다 앞세우고 있다.

즉, 統一은 共産主義를 압도함으로써 이루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고 그것도 完全한 획일적 統一이 아닌 다른 統一에의 接近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体制에 대한 이곳 住民들의 집착은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에 대한 認識에서도 나타나는데 民主主義에 대한 認識은 「自由와 人権尊重」을 들고 있는 住民이 全体의 65%이고 北韓共産主義와 競争함에 있어서 우리의 強点으로 들고 있는 것도 「自由와 民主主義制度」가 35%, 「경제건설」이 21%로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집착과 긍지가 높았다.

결국 統一政策에 대한 伝達弘報의 効果를 住民의 理解度, 支持度 및 期待度라는 側面에서 볼 때에도 事實의 伝達은 높은 水準에 이르렀지만 充分한 理解를 시킬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고 특히 높은 관심도에 비하여 理解度는 相対的으로 낮으며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支持度는 過半数線 이상으로 높이는데 成功했으나 이러한 努力의 成功可能性에 대한 信念과 期待度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 過半数線을 確保하지 못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統一에 대한 낙관과 비관의 両分된 意見을 낳게한 것은 伝達弘報의 効果로서 不充分하다는 것이 事実이지만 現狀態下에서 自由民主主義体制와 経済建設에 대한 信念과 긍지를 継続 保有케 하고 있다는 体制維持的 効果는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6.23宣言이 미칠 影響

이상에서 살펴본 接敵地住民의 意識構造와 統一問題에 대한 態度에 비추어 볼 때 이번 6.23宣言이 어떠한 影響을 미칠것인가 특히 住民들의 国家安保 態勢와 統一努力에 어떤 우려되는 要素는 없겠는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第1章에서 제기한 6.23宣言이 国家安保態勢에 惹起시킬 우려가 있는 問題点을 第2章에서 分析한 이 地域 住民의 의식구조 및 통일관에 대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먼저 安保態勢에 미칠지도 모르는 否定的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가. 반공, 안보태세의 해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戰線地域으로서 敵対的 反共態勢를 強化하여 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마 北韓政權에 대한 事実上의 認定을 하고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는 6.23宣言의 内容에 대한 住民의 反応은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接敵地에 대한 反共教育과 弘報는 特히 無条件的이었고 그들의 武力挑発에 대하여 感情的으로 高潮된 敵対感이 저류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戰闘的 反共精神에 대하여 그들과의 共存을 認定하는 6.23宣言은 감정적으로 混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勝共, 統一教育의 内容이 再整備될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러한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問題다.

그렇다고 北韓이 武力南侵과 赤化統一의 의도를 포기할리가 없기 때문에 6.23宣言으로 그들을 平和的 関係로 유도하려는 韓国의 立場에는 平和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国防力과 国民의 団結된 反共態勢가 一層 要請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無条件的이고 形式的인 面이 많았던 反共態勢와 教育을 実質的이고 批判的인 内容있는 反共教育과 統一에 接近해 가는 段階的 努力에 대한 充分한 理解로 대체시키는 것이 시급한 課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準備가 철저하지 못한 実情이므로 그동안의 教育, 弘報상의 混乱과 진공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住民중에는 一部이지만 불투명한 思想을 가지고 있는 住民이 있고 北韓의 対南宣伝이 가장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는 지역이

므로 이점을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급상승한 統一에의 期待가 갑자기 좌절될 우려가 있고 실망과 統一意慾의 감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6.23 宣言이 그 高次元的인 統一에의 포석이라는 外交政策的 目的에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住民들에게는 당장의 統一努力의 포기와 分斷의 永久化를 의미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게할 可能性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地域住民들의 統一에의 期待는 특히 높았고 그 동안의 意識構造에는 不信과 不滿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만큼 失望과 체념도 빠를 可能性이 있다.

더구나 이곳 住民들 사이에는 統一에의 전망에 대하여 극단적인 楽観的 見解와 극단적인 悲観的 見解가 両分된 状態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悲観論이 갑자기 増大될 可能性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政府政策에 대하여 能動的인 参与意識이 不足하고 被動的 傾向이 많은 이 地域住民들에게 無関心과 不信을 조장할 염려가 있다.

한편 北韓側은 6.23 宣言을 계기로 韓国이 国際潮流에 対処하고 外交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결과 그들의 損失을 内部의 선전선동으로 회복할 속셈으로 이 선언을 統一을 원하지 않고 分斷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라고 선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수세적인 입장에 서게될 염려가 있다.

다. 共産主義를 圧到함으로서의 統一만을 생각하고 있는 住民들에게 北韓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느냐는 不安感을 던져줄 可能性이 있다.

北韓共産治下에서 生活한 경험이 있는 避難民들은 南北対話의 開始때부터 共産主義者와의 対話에서 얻을 것은 없으며 그들은 한치의 양보와 타협은 할줄 모르고 속임수로 일관할 것이라는 信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住民들은 6.23宣言을 対北韓態度의 後退로 생각하고 增大된 不安感은 南北接触自体의 効果와 継続에 대한 努力에 회의를 갖게할 염려가 있다.

라. 一部 拉北漁民中에서 나타났던 機会主義的 傾向 즉, 体制와 思想에 대한 自己信念을 갖지 않고 어느쪽에 든지 保身을 위하여 加担할려는 어리석은 態度를 增太시키고 6.23宣言의 잠정적 共存을 그 合理化 手段으로 삼을 可能性이 많다.

이곳 住民들은 특히 理念의 철저를 두려워 하는 傾向이 많다. 両体制가 중첩적으로 支配하게 되면서 理念이 철저한 住民들이 犧牲당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기 때문이며 한편 이산가족이 북한에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도 그렇다.

이와 같이 철저한 反共思想을 가진 월남피난민과 기회주의적 불투명한 思想을 가진 住民이 혼재하기 때문에 異質性이 빨리 극복되지

못하고 따라서 共同体的 結束이 약한 社会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조를 더욱 增大시킬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문제에 대한 극단의 기피현상을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투철한 정신무장으로 유도할 것인가에는 조심스런 분석과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마. 政策의 急転換으로 인한 쇽크가 새로운 불안감을 增大시킬 염려도 있다.

6.23 宣言을 전후하여 주한 유엔군의 철수가 논의되고 있고 強大国의 현상고정정책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힘의 진공상태가 한반도에 形成되지 않을가 하는 불안과 자주통일은 어렵고 強大国의 흥정에 의한 한반도의 처리가 또 다른 6.25와 같은 南侵을 유발하기에 이르지 않을가 하는 불안감을 낳을 염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北韓社会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온 탓으로 그들에게 간혹 의외의 면이 있다는 선전적 전시에 회의를 품게할 위험도 있다.

더구나 이곳 住民들의 소득수준은 극히 낮고 北韓은 이들의 불만을 크게 하기 위하여 北韓住民의 생활상을 과대 선전하려는 傾向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23宣言이 接敵地 住民들에게 이상과 같은 否定的이고 悲觀的인 影響만을 미칠 可能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安保態勢나 反共精神에 잠재하던 虛点을 보강하고 統一論議에서 잘못된 요소를 불식할 계기가 될 可能性도 많다. 즉, 긍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겠다.

가. 성급한 統一論을 불식하고 平和統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接近 達成하려는 政府의 方針과 過程을 確實히 하게 됨으로써 両分된 統一論議를 一致시키고 성실한 統一準備態勢를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나. 6.23宣言은 第一段階의 目標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해소와 平和維持이기 때문에 接敵地住民에게 戰線地方으로서의 不安感과 疎外感을 불식하게 하고 安靜感과 定着意思를 增大시킬 것이다.

다. 無条件的이고 形式的인데 치우쳤던 外形的 反共態勢를 內実化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共産主義理論과 그들의 実態를 알고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民主主義에 대한 깊은 信念을 가진 反共教育과 統一教育을 가져올 것이다.

라. 무엇보다도 現実을 그대로 인정하고 事態를 직시함으로써 새로운 進路를 개척하는 政策姿勢는 이곳 住民들에게도 信頼와 協助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両体制를 경험 했고 또 直接, 間接으로 北韓의 生活相을 알고 있기 때문에 共産主義의 허구성과 억지선전에 대한 정반대의 현실적 정책추구는 信頼感과 自身感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 北韓과의 諸般競争을 위하여 이 地域에 대한 開発投資가 予想되기 때문에 그들의 発展意慾을 낳게하고 疎外感, 체념 및 불만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어로저지선의 북상 민통선의 북상 또는 철폐가 予想되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관광개발과 투자 증대현상은 6.23宣言으로 더욱 活潑해질 수 있음을 住民들도 알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6·23宣言에 대한 住民의 理解程度와 統一課題에 대한 現地教師들의 意見

1. 6·23宣言에 대한 地域住民들의 理解度

(1) 調査對象 및 範圍: 江原道內 各 地域 就業住民 100人

(2) 調査期間: 1973年 10月 20日 ~ 25日

(3) 調査事項 및 方法: 「6·23宣言의 內容은 무엇입니까?」라는 面談口頭質問에 대한 직석답변

(4) 調査結果

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理解程度

구 분	이 해 도 (%)
충분히 알고있다.	23
어느정도 알고있다.	44
잘알지 못하고 있다.	24
전혀 모르고 있다.	7
무응답	6

나. 실제로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

구 분	이 해 도 (%)
상당히 알고있다.	25
약간 알고 있다.	32
모르고 있다.	43

다. 理解하는 內容의 順位

내 용	빈 도 (%)
적성국가와도 문호개방	30
적십자 회담등 남북대화 계속 추진	28
평화통일 의사를 해외에 선포	18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	17
북한의 무력야욕 포기와 우리의 정신무장촉구	7

라. 評價 分析

① 이해하는 정도가 낮다.

② 스스로 알고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알고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훨씬 못미친다.

③ 공산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사항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④ 적십자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선언이란 의견이 의외로 많다.

⑤ 선언의 결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잘모르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이다.

⑥ 국민의 자세로서는 정신무장과 국력배양으로 압축되었다.

2. 統一問題에 대한 現地教師들의 意見

(1) 調査對象 및 範囲: 江原道所在 中高等 学校 教師 200人

(2) 調査期間: 1973年 8月 10日부터 20日

(3) 調査事項 및 方法: 「統一課業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国家的 課題와 教育弘報上의 課題는 무엇이며 그 對策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質問書에 의한 主觀式 答弁

(4) 調査結果

가. 国家的 課題

순위	적 극 적 과 제	빈도(%)	소 극 적 과 제	빈도(%)
1	정신무장, 승공자세	42	사회부조리, 부정부패 제거	18
2	국력배양, 경제건설	41	퇴폐풍조, 사치낭비 일소	16
3	대화계속 교류확대	23	소득격차, 지역격차 해소	11
4	외교강화, 다변외교	17	형식만의. 반공을 내실화	10
5	농어촌 근대화, 새마을사업	17	성급한 통일론, 불식	9
6	민족의식, 동포애 고취	16	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8
7	민주주의 제도 강화	15	실업화, 무위도식자	5
8	군사력 강화	8	공존도 무방하다는 사고	4
9	각자의 책임 충실	6	어떤체제도 좋다는 통일론	4
10	지도자의 통일 노력	4	파당심 지방색	3

나. 主要課題의 根據와 實現方法

과 제	근 거	실 현 방 법
정 신 무 장	구호전시에 그친 반공	통일정책에 대한 자료제공
	공산주의자의 이론무장	반공교육과 통일교육 일원화
	반공교육과 통일교육 혼란	북한실정 상세히 자유토의
	통일접근에 대한 무지	비판 허용 반공정신 생활화
	지나친 안도감	공산주의 이론비판 교육홍보
	단결만이 승공	북한 전략 구체적으로 알려
		민주주의 우월성 신념화
국 력 배 양	경쟁 승리 수단	소득증대, 경제건설, 농어촌
	소득높아야 공산주의불침투	개발, 국민협동, 자조 과학화
	국력 뒷받침 있는적극외교	운동, 새마을 운동, 중화학
	민주주의 우월성 입증	공업 육성
	귀속감 증대	
대 화 계 속	긴장완화	꾸준한 인내
	북한에 자유화 물결	무력도발 불가능 알려
	평화통일의 길이므로	민족애 고취시켜
	같은 언어문화의 동포이므로	점진적 교류확대
	국제화해 무드좇아 활용	국제사회에 끌어 들여

과 제	근 거	실 현 방 법
	이질적 체제 제거 가능성	국제여론 일으켜
	경제교류 상호이익	
외교강화	국제적 다극화	적극 다변 외교
	화해무드에 능동적대처	공산국에도 문호개방
	북한외교 이겨야	민간외교 확대
	실지외교	스포츠 예술 해외 파견
	수출증대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
	유엔등에서 지지 필요	중립국 포섭
	우방과 유대로 무력남침 방지	적성국가와의 교류확대
	전쟁억제, 통일 여건조성	
부정부패제거	사회 부조리는 공산침투로	국민윤리 확립
	국민총화를 깨트림	공무원 기강확립
	경제건설의 암적 존재	국민 계몽운동
		고발정신 고취
		생활안정
		지도자 솔선수범

과 제	근 거	실 현 방 법
사치낭비	국민총화 불가능 국력배양 방해 정신타락 초래	소득격차 해소 수입억제 사치품 중과세 퇴폐풍조 엄벌 유흥업소 억제
소득격차해소	국민단결 위해 불평등 제거 공산주의 선전 방어 민주주의 우월성 위해	농어촌 개발 새마을 운동의 소득증대 사업 치중 지방교육 육성 도시 인구집중 억제 산업시설 분산 노동자 처우 개선

다. 教育 弘報上의 課題와 그對策

과 제	근 거	대 책	빈도(%)
반공과 통일에 관한 교육, 홍보의 재정비	지금까지의 반공교육 홍보와 남북평화 통일 접근에 대한 교육홍보는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을 야기한다.	반공과 평화통일의 관계를 명확히 함. 반공과 통일에 관한 교육 홍보기관의 일원화 담당기관 설치	40
반공교육의 내실화	무조건적 형식적 반공만으로 되지않음. 공산주의를 더 잘알고 신념으로 민주주의 지지 필요	공산주의 이론비판과 구체적 통일정책에 관한 내용과 논의 한계를 명확히 해줌.	28
북한실정, 공산전략의 정확한 소개	이에 대한 질문이 많으나 답변할 구체적 자료 없음. 반공선전과 다른점 많다	솔직한 북한소개 구체적 자료 제공 세부전략과 대비책 제공	20

과 제	근 거	대 책	빈도(%)
북한동포에 대한 동족감 증진	새세대는 동족감 부족, 단일민족 공통성 유지, 적대감 없애기 위해	일부 공산지도자만 나쁘다고 알려야 한다.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문학작품등 만들어서 체육, 예술 교류통해서	17
통일의욕 신념강화	통일 비관론 없애기 위해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으므로	통일되어 맞는 기쁨과 국가이익 설명하여 국가민족의 모든일 통일과 관련시켜 설명	16
자유토의 비판허용	이론대결 이길수 있도록 자유 민주주의 긍지 갖도록 통일정책에 국민의사 반영토록	공산주의에 대한 서적제공 반공법에 안걸리는 한계 확대 통일정책에 국민의사 반영의 길을 열어주어	15
취약지구 홍보계몽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비관이 엇갈린다. 공산주의 침투가능, 무식자가 많아 쉬운 설명 있어야	메스콤보다는 사람이 찾아가 말로 전해야 공무원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하도록 평소의 불평불만 해소시켜야	15

라. 評價分析

① 統一問題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비교적 깊다.

② 政府立場에 대한 支持度가 높다.

③ 反共 統一教育에 있어서 内容, 資料, 限界등에 부족과 곤란을 크게 느끼고 있다.

④ 自身들의 意思發表와 參與의 기회를 갖기를 願하고 있다.

⑤ 지금까지의 政府當局의 교육홍보가 크게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⑥ 体制 固守的 傾向이 강하다.

⑦ 精神武装, 社會 不条理, 퇴폐풍조 및 所得隔差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⑧ 統一 促進要因으로 自主力量, 国際関係 및 民族意識의 3者를 모두 主要視하고 있다.

⑨ 批判的인 意見의 表示를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⑩ 統一方案 接近方法등에 관한 獨創的인 思考의 幅이 넓지 못하다.

3. 부각된 問題点과 改善方向

가. 統一問題에 대한 観心低下와 낮은 理解程度

赤十字 會談 및 7·4 共同声明에 비하여 6·23 宣言은 住民들에게 준 충격이 적었다는 점, 그 内容이 長期的 展望下의 段階的 統一接近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 그에 앞서 進行되어온 적십자

회담과 조절위원회 회의가 별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점등 때문에 住民의 관심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6·23 선언에 대한 理解度도 다른 事項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앞서 고찰한 6·23선언이 미칠 영향으로 든 統一에의 期待의 좌절과 실망과 체념에 의한 統一意慾의 감퇴라고 보며 우려되는 事項이다

그러나 성급한 기대와 무분별한 통일방안, 극단적으로 양분된 주민의 예견이 6·23宣言을 계기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하히 이 우려되는 점과 낙관적인 요소를 조화시키면서 統一政策에 대한 理解를 높이고 信念과 努力을 증진시킬 것이냐가 문제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관한 지금까지의 伝達만에 그치는 弘報方式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敎育弘報를 통하여 住民의 여론을 선도하여야 하겠다.

나. 統一論議의 폐쇄성과 信念不足

무궤도한 統一論議는 国論分裂과 反共態勢의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지만 統一論議가 지나치게 폐쇄적일때도 또한 統一努力에 대한 国民的 參與와 支持를 얻을 수 없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統一政策을 政権維持 手段으로 보는 등의 誤解와 統一에 대한 自信과 信念을 갖지 못하는 不安感을 增大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統一論議가 政府 一方的이고 国民的 參與가 制限되어온 事実은 住民들이 統一問題에 대하여 큰 관심은 가지면서도 意思發表

를 꺼리는 데서 오는 욕구불만과 政策發展에 따른 変化의 충격에 대한 受容姿勢의 未備라는 結果를 招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특히 젊은 지식층의 소극적 자세는 住民에 대한 弘報의 파급효과를 차단함으로써 大多数 住民들이 統一問題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論議와 北韓実情등을 教育界를 中心으로 점진적으로 拡大시키고 政策決定과 国民에 대한 弘報事業에 参與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教師들의 意見을 보아도 知識層의 姿勢와 観点은 比較的 正確하고 統一論議를 開放한다 하여도 우려될만한 事項은 없는 것으로 評價된다.

다. 体系있는 教育弘報의 不足

国家安保와 統一에 관한 教育弘報가 그 担當機関에 따라서, 事件에 따라서 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산만한 경향이 있다. 물론 對象과 地域에 따라서 教育 弘報의 内容과 方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多様性을 가져야겠지만 政府의 基本政策이 住民에게 伝達되는 過程과 다시 住民의 反応과 意見이 政府政策에 미치는 「체널」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는 이와 다르다. 文化公報部의 弘報와 文教部의 教育, 国防部의 訓練 및 統一院의 教育弘報가 일관된 기준하에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住民들에게 実施함에 있어서 통합 조정할 担當機関이 一元化되지 못한 관계로 산만하다는 것을 住民들 특히 一線教師들의 意見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反共教育 弘報와 統一教育弘報를 그 内容에 있어서도 体系化시켜야 할뿐 아니라 그 実施過程에 있어서도 担當機関 對象別로 体系化된 有機的 弘報가 要求된다.

라. 弘報方法의 多様性 不足

住民들이 統一問題에 接하게된 媒介体가 間接伝達 方法인 신문, 라디오, T.V에 限定되는 경향이 있어서 깊이 있는 内容이나 根拠에 대한 説明이 不足하다.

統一問題같은 国民的 支持가 필요한 弘報에 있어서는 直接伝達의 方法 즉 統一問題에 대한 座談會라든지 강연회라든지 人對人(Face to Face)의 方法이 併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接敵地 住民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소외감과 不安感 내지 不信感이 크기 때문에 大衆伝達方法인 매스콤만의 方法보다는 직접 関聯人士가 現地에 나가 口頭로 説得하고 住民의 의문事項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

또한 統一問題를 단순한 高位指導者만이 参與하는 政策問題로 다루지 말고 国民運動으로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統一推進을 위한 民間団体를 결성하거나 과거의 反共団体를 改編統合할 필요가 있으며 統一運動의 指導的 役割을 担當할 指導者들을 양성하고 指導者 大會라든지 강습회, 보고대회 등을 통하여 住民들에게 계속적이고 다양성있는 弘報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制度化할것도 고려할 문제다.

그리고 文学, 芸術作品등으로 統一에의 의욕증대와 問題点을 해결할

方法등을 住民에게 生活속에서 실감있게 伝達하는 방법도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 反共教育과 統一弘報의 不一致

統一教育 弘報로 發展的 統合을 하여야할 종래의 反共教育 弘報가 아직 体系있게 조정되지 못한 一線教育機関에 있어서는 아직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教育弘報의 内容은 물론 個個의 用語에 있어서도 反共과 統一이 어떤 関係로 연결되는 가를 明確히할 教材와 指針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統一에 관한 교재라든지 北韓実情과 그들의 전략 전술에 관한 해설, 비판, 대비책이 상세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反共 統一教育을 担當하고 있는 教師들에게 北韓実情과 統一政策에 대하여 教育하고 發言할 수 있는 限界의 明示가 시급히 요망된다.

学生들로 부터 급증하는 질문에 답변할 자료가 부족할뿐 아니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망서리게 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

일선교육 担當者들에 대한 교육을 서두르고 또 그들에게 상당한 자료와 發言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V. 6·23 宣言의 伝達弘報上의 考慮事項

1. 伝達弘報方法上의 考慮事項

弘報過程에서 가장 重点을 두어야 할 것은 組織的인 弘報活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弘報活動이 組織的으로 되기 위해서는 弘報活動은 필요로 하는 組織体와 公衆사이에 調和된 適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継続的인 努力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適応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相互間의 利益을 増進시킬수 있는 意見 및 情報의 交流가 要請된다. 이 自由로운 意思交流로써 好意 好感의 全体的인 一致와 連続性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弘報過程은 調査와 計劃과 「코뮤니케이션」의 3段階를 継続的으로 循環시켜 公衆의 与論을 尊重하고 이를 받아드려 政策面에 反映시킬수 있어야 한다.

6·23宣言의 弘報에 있어서도 이러한 原則에 입각하여 組織的 弘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上의 考慮를 하여야 한다.

가. 接敵地住民에 대한 철저한 調査가 先行되어야 한다.

弘報活動은 調査에서 始作되어야 한다. 먼저 接敵地 住民과 政府와의 関係 즉 住民들의 政府에 대한 態度를 把握함에서 부터 그들의 意識構造와 統一問題에 대한 基本的인 態度와 与論 그리고 接敵地의 社会経済的 構造와 住民의 構成上의 特徴에 이르기 까지

住民에 대한 기초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 6.23宣言으로 住民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인가를 分析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接敵地住民의 社会的 背景과 意識構造 그리고 統一問題에 대한 輿論과 要望事項등을 江原大学 統一問題研究所에서 調査한 바에 따라, 大略 分析하고 그 原因을 考察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는 보다 大規模로 보다 철저히 그리고 継続的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弘報活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나. 理想과 目標의 設定에서 부터 細部 運営計劃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計劃을 세워야 한다.

弘報過程의 第2段階인 計劃에 있어서는 먼저 現実에 土台를 두고 具体的이고도 現実性있는 同時에 未来像을 提示할 수 있는 「비젼」이라는 理想과 目標를 明確히 해야 한다.

일찌기 国家弘報에 관하여 「알프렌 로젠베르그(Alfred Rosenberg)는 그의 著書 「二十世紀의 神話」에서 하나의 弘報는 세개의 時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来日이고 둘은 어제와 오늘의 結果로서의 現在이며 셋은 来日과 이 現在를 연결시키고 有機化하여 이룩되는 「비젼의 世界」의 創造가 그것이다. 하고 지적하고 있다.

6.23宣言의 弘報에 있어서는 住民들에게 統一韓国의 未来와 過去의 유산으로서의 分析과 緊張状態의 現在 그리고 6.23宣言으로 어떻게 이러한 現在를 来日에 연결시켜 새歴史를 創造할 것인가와 그 過程에 대한 「비젼」을 明確히 또한 具体的이고 現実性있게 提示할 수 있어

야 한다. 6.23宣言이 제시하는 来日을 동경하고 오늘을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政府의 基本政策에 立脚한 長期計劃과 그 테두리안에서 接敵地의 特殊性에 따른 当面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한 短期計劃을 세워야 하는데 長期計劃은 接敵地住民들의 意識構造上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統一論議에 있어서 国論을 統하여 南北統一의 前進的 선봉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세확립과 政府에 대한 好意好感関係를 수립하는데 두어야 하고 短期計劃은 6.23宣言이 住民들에게 미칠 우려성 있는 安保態勢의 해이와 혼란을 가져올 악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運営計劃에 있어서는 특히 弘報를 담당할 機関과 要員을 総括的으로 지휘 조정할 責任部署를 정하여 体系化하고 一方的으로 住民에게 주입시키는 方法이 아니라 住民들로 부터 의사발표를 유도하고 협력을 호소함으로써 住民 相互間에 전파시키는 方法을 모색하여야 하며 계몽과 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일선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 意見指導者(Opinion Leader)에 의한 퍼스널 코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후진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住民이 많기 때문에 意見指導者들이 안면을 맞대고 직접적인 說得作用을 하는 「퍼스널 코뮤니케이션」이 「메스콤」에 비하여 훨씬 効果가 크다.

그런데 接敵地域 住民들에 대한 6·23宣言의 弘報에 있어서는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接敵地住民중에는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을 뿐아니라 그들의 意識構造의 저변에는 不安感 疎外感, 不信感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베스콤」만으로는 弘報의 効果를 크게 거둘 수 없다.

거기에다 6·23宣言이 高度의 政策的 배려에서 나온 外交宣言이어서 그 內容과 背景 및 앞으로의 発展可能性등 높은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들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의 직접, 간접의 반대선전이 가장 미치기 쉬운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의문을 해답해 주는 방법에 큰 効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住民의 輿論을 지도할 수 있는 中間階層을 먼저 형성, 설득하고 이들을 통하여 住民을 대하는 채널을 형성하여야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새마을지도자, 교사 각종 사회단체지도자 및 직업단체 지도자를 망라한 통일운동지도자의 형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로서 전국적 규모의 통일국민협의회와 지역지부같은 것을 결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伝達方法도 대중강연회, 좌담회, 면접상담, 시청각교재사용등을 다채롭게 활용할 것이며 지금까지 큰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는 월보, 연감등의 소형간행물과 게시판, 개별서신등 소위 「하우스 메디아」(House media)를 이와 같은 「퍼스널 코뮤니케이션」과 연결시켜 그 뒷받침이 되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 政府와 住民間의 水平的関係에서 理解를 기초로한 協力을 求하고 一方通行式 伝達에 그치지 않고 住民의 意思를 물어 政策에 反映시켜야 한다.

政府弘報는 統治의 観念에 따른 上下関係 즉 命令과 服従 関係에서가 아니라 委任者와 受任者의 観念에 따른 相互平等한 水平的 関係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6.23 宣言의 伝達弘報 方法도 政府가 住民에게 가져야 할 姿勢를 命令하고 住民의 服従을 要求하는 方式이 되어서는 안되며 政府가 住民들에게 受任者로서 報告하고 理解와 協力을 求하는 方式을 취할 때 비로소 住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一方的으로 政府의 政策을 住民들에게 伝達함에 그쳐서는 안되고 住民들의 이에 대한 意思를 묻고 輿論에 따라 잘못된 점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是正하고 補完하겠다는 態度를 천명하여야 하며 또 앞으로 6.23 宣言에 따라서 発展되어 나올 細部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住民의 意思를 反映시키는 交流性을 図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伝達弘報過程에서 住民들의 参与意識을 고취시키고 意思発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方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伝達弘報内容上의 考慮事項

內容上 特히 考慮해야 할 점은 먼저 住民의 관심과 輿論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国民의 輿論을 아랑곳 하지 않고 独走하는 政府 보다 国民의 輿論을 잘 들을줄 아는 政府를

国民은 더 信頼하고 與論이 反映된 政策을 더 支持하며 비록 反対意見을 가졌던 国民도 説得하기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前段階로서 건전한 輿論이 形成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統一問題는 禁止로 되어왔기 때문에 輿論이 公開的으로 正常的 節次에 따라서 形成될 수 없었다.

그러나 統一問題가 政策으로 実施되는 段階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禁止는 폐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重要한 政策이 輿論과 無関하게 実施된다는 것은 国民의 支持와 参与없이도 政策이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모순과 통하는 論理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論議의 段階的 開放과 이에 대한 資料로서의 事実 特히 北韓実情의 報道가 점진적으로 行하여 져야 하고 討論의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

그리고 弘報의 効果는 住民의 信頼에 비례하기 때문에 報道의 内容과 根拠 및 関聯事実등은 真実하고 正確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政策에 대하여 그 기대되는 効果만을 과장하여 報道하고 우려되는 事項이나 불가피한 여건에 대하여는 침묵하거나 변명을 할 때 住民의 회의는 증대되고 오히려 支持度는 감소한다.

다음에 接敵地住民에 대한 弘報에 있어서는 地域住民의 公共의 利益과 一致되는 점을 強調하고 不一致되는 점이나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事項은 이에 대한 具体的인 補完策이나 対備策을 아울러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에 立脚하여 6.23宣言을 接敵地域 住民에게 伝達弘報함에 있어서는 特히 다음과 같은 內容上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가. 6.23宣言과 安保態勢의 關係를 明確히 해야 한다.

6.23宣言이 北韓의 武力赤化 統一政策의 포기에 根拠를 둔 것이 아니라 이를 포기시키는데 一次的 目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平和政策을 뒷받침 할 수 있는 安保態勢는 보다 높은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나. 平和統一 過程으로서의 緊張解消와 共存의 不可避性을 強調하여야 한다.

平和統一은 段階的 進前을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그 첫 段階가 緊張解消이며 緊張解消는 關係正常化와 国際的 平和維持圧力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잠정적 共存은 불가피하고 그 동안에 이질적요소의 제거와 民族的 統一意志의 증진으로 統一을 모색하여야 함을 납득 시켜야 한다.

다. 反共과 統一의 關係를 分明히 해야 한다.

北韓政権의 事実上의 認定이나 共存은 共産主義의 容認이 아니며 統一의 포기는 더욱 아니라는 것을 明確히 하고 이와 反対로 民主統一을 위한 反共의 內実化가 要請되기 때문에 共産主義와 民主主義의 內容과 強弱点을 더욱 잘알고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가지고 모든 競争에서 우월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실증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다.

라. 6·23宣言으로 接敵地住民의 公共 利益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음을 強調하여야 한다.

긴장완화와 開発競争을 초래함으로써 이 地域의 급속한 発展이 約束된다는 점과 不安感, 疎外感이 불식되고 安静된 社会가 이루어질 것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마. 6·23宣言에 대한 北韓의 反対政策이나 비난 선전을 具体的 根拠를 들어 하나하나 비판해 두어야 한다.

北韓의 선전 선동은 住民들의 회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는 問題들에 집중될 것이므로 미리 의문날 점이나 비난이 있는 事項에 대한 根拠라든지 불가피성을 솔직히 제시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事項도 적라라하게 밝힘으로써 住民과 함께 対備策을 마련하려는 姿勢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앞으로의 政策変化에 대해서 適応性을 가질 수 있도록 장차의 전개전망과 문제점을 예상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外交政策이 항구불변한 것이 될 수 없고 더욱이 統一過程을 위한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어떤것은 변경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계속 견지해야 하겠다는 것등 교육적인 설명의 노력도 아울러 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제반 事情으로 미루어 볼 때 6.23宣言은 어떤 地域보다도 接敵地域의 住民들에게 큰 影響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地域住民들이 統一政策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떠한 姿勢와 態度를 견지하는 가는 앞으로의 南北関係와 統一問題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住民들의 統一問題에 대한 關心과 理解程度는 날로 떨어지고 있고 住民들의 意見은 分散되어 구심점이 흐릴뿐아니라 社会的構造와 意識의 심층부에는 우려할만한 要素들이 깊이 뿌리 박고있다.

결국 接敵地域에 대한 弘報活動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동시에 근본적인 社会, 経済的 問題解決을 위한 努力이 併行되어야 하겠다.

특히 낙후된 産業構造와 底所得水準을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開発投資가 필요하다. 그리고 北韓共産主義者들과의 次元높은 対決, 競争을 위하여 住民의 知的 信念的 武装을 再整備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 地域住民에 대한 統一問題弘報는 아무런 特別한 배려를 하지 않은 듯하다.

6.23宣言의 伝達弘報의 지금까지의 成果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는 組織的인 弘報를 実施하여야 하며 특히 弘報対象에 대한 理解위에서 体系化된 弘報方案을 마련하고 이를 国民運動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 하다.